

[사회]

‘인터넷 보안관’ 광주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원들이 20일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동호 경위, 이명철 경사, 김재홍 경장, 이형택 경감(뒷쪽), 황홍희 경사.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e-세상 치안 책임진다



지난 20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사무실. 책상에 마련된 2대의 컴퓨터를 응시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그동안 수사관들이 추적해 온 인터넷 쇼핑몰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용의자가 컴퓨터에 접속한 것이다. 수사관들은 용의자의 서버와 IP 추적을 히느라 정신이 없다.

수사관 중 일부는 용의자가 자주 사용하는 메일 주소를 찾았고, 곧바로 용의자 인적사항 파악에 나섰다. 용의자의 인적사항과 위치가 파악되자 수사관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용의자가 모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상태. 하지만, 수사관들은 어는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증거물을 수집했다. 지난 2일 개청한 광주지방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요원은 모두 6명. 정보처리기사·리눅스·마스터 등 1인당 평균 4개의

시를 한다. 범죄 증거를 찾게 되면 IP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검거하게 된다. IP추적 이외에도 사이버수사대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데이터 복구다. 물리적으로 훼손이 된 하드디스크는 물론 여러 번 포맷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복구도 가능하다. 심지어 불에 탄 하드디스크와 삭제된 후 대전화 문자메시지까지도 복원할 수 있다. 각 대학에 따르면 남부대는 91명 모집에 812명이 지원해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5.5대 1)보다 크게 높았다. 간호학과 50대 1, 의료공학과 17대 1, 호텔조리학과 16대 1, 향장미용학과 16대 1, 태권도학과 14대 1 등 취업에 유리한 실무 중심 학과에 학생들이 몰렸다. 초당대는 118명 모집에 927명이 지원해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6.2대 1)보다 크게 상승했다. 간호학과 27.3대 1,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사이버 범죄 24시간 감시

1인당 자격증만 평균 4개

이들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사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느라 하루 24시간도 모자라다. 휴가철 여행 관련 각종 인터넷 예약사기와 쇼핑몰·경매사이트 등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수사관의 1인당 하루 평균 검색 사이트 수는 30~50여개.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이트를 찾아낸 뒤 메일 게시물 등을 뒤져보며, 집중 감

시할 때 다른 열정 때문이다. 하청장은 지난 2000년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를 창설하고 초대 센터장을 역임한 컴퓨터 공학박사 출신으로, 도시형 지인 서비스 강화를 강조했다. 이형택(37·경감)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을 통해 범행을 모의하거나 청부살인을 의뢰하는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이버 세계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24시간 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 막바지 장맛비 25일부터 본격 불볱더위

광주·전남지역에는 23~25일까지 막바지 장맛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8월에는 평년평균기온(19~27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며, 장마가 끝난 뒤에 대개 불안정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마전선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22일 순천의 낮 최고기온이 33.4도를 기록하는 등 ▲광양 31.9 ▲화순 31.4 ▲광주 29.5 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수시 1학기 원서 마감

취업 전망 밝은 학과 몰렸다

동신대 간호학과 77 대 1

광주·전남 13개 4년제 대학이 21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1학기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학생 수가 1천556명으로 지난해의 3천939명에 비해 절반 가량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다. 동신대 간호학과가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취업전망이 밝은 학과에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특성과 졸업현상이 여전했다. 각 대학에 따르면 남부대는 91명 모집에 812명이 지원해 평균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5.5대 1)보다 크게 높았다. 간호학과 50대 1, 의료공학과 17대 1, 호텔조리학과 16대 1, 향장미용학과 16대 1, 태권도학과 14대 1 등 취업에 유리한 실무 중심 학과에 학생들이 몰렸다. 초당대는 118명 모집에 927명이 지원해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6.2대 1)보다 크게 상승했다. 간호학과 27.3대 1, 뷰티코디네이션학과

13대 1, 조리학과부 11.6대 1 등 취업 전망이 밝은 학과가 인기를 끌었다.

광주대는 107명 모집에 761명이 지원해 평균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6.69대 1)보다 높았다. 유아교육과 19대 1, 경찰행정학과 16대 1 등이었다. 광주여대는 103명 모집에 839명이 지원해 평균 8.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8.2대 1)와 엇비슷했다. 간호학과가 4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스포티스학과 14.8대 1, 초등특수교육과 12.3대 1 등이었다. 동신대는 195명 모집에 1천161명이 지원해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4대 1)보다 크게 상승했다. 특히 간호학과는 2명 모집에 154명이 지원해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물리치료학과도 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호남대는 209명 모집에 962명이 지원,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간호학과가 68대 1로 가장 높았고, 유아교육학과 13대 1, 뷰티미용학과 12대 1 등이었다. /황대중기자 hwangtae@

타워크레인 노조

고공 농성 풀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50m 높이 타워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지회 조합원들이 21일 농성을 해제했다. 조합원들은 사용자 측과 1일 8시간 노동과 국경일 및 공휴일 보장 등 일

부 쟁점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자진 해산했다고 밝혔다. 앞서 타워크레인 광주·전남 지회 노조원 26명은 지난 20일 새벽 2시부터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하나 2지구, 서구 중앙동, 북구 용봉동, 목포시 남약지구 등 건설현장 8곳의 타워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July 23rd (Monday). Includes a table for temperature ranges across various regions (e.g., Seoul, Gyeonggi, Chungcheong, Jeolla, Jeju) and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icons for each region. Text indicates heavy rain from the afternoon onwards.

원전 고장 불시정지 상반기만 8건

영광원전은 2건

일본 니가타(新潟) 현 가시와사키 카리(柏崎刈羽)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우리나라 원전도 각종 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지가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고리와 영광,월성,울진 등 가동중인 20개 원전에서 발생한 불시 고장정지 사건은 모두 8건으로 집계됐다. 원전의 고장 정지는 우리나라의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하나만 해도 1978년 상업 가동시부터 1990년까지 연평

군 6.6건이었고 2002년에는 8건이었다. 그러나 2003년 다시 11건으로 늘어났고 이후 매년 10~12건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울진 원전에서 모두 3건의 고장 정지가 발생했고 고리와 영광이 각 2건, 월성에서 1건이 일어났다. 원인별로는 발전관련 설비에서 발생한 자연열화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정비 불완전이 2건, 설계 불완전과 인적 실수가 각 1건이다. 앞서 일본 니가타 현 소재 도쿄전력의 가시와사키 카리와 원자력발전소에는 지난 16일 발생한 규모 6.8 강진의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 방사능 물질이 누출돼 가동정지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연합뉴스

가수 강현수·이재진도 재입대 통보

씨아와 함께 가수 강현수와 이재진도 재입대 통보를 받았다. 강현수의 한 측근은 “강현수가 병무청으로부터 8월 하순 충남 논산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역 복무는 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이재진의 측근도 이날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던 이재진이 최근 8월 6일 충남 논산육군훈련소 재입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강현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까지 광화문 인근의 한 병역특례 IT 업체에서 복무한 후 병무청에 업체이적 신청을 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재진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여의도의 병역특례 게임업체에서 근무했다. 강현수는 1998년 연예계에 데뷔한 후 1999년 솔로 1집 음반을 발표했으며 2003년과 2005년 브이아이라는 이름으로 두 장의 음반을 냈다. 이재진은 1997년 남상 6인조 그룹 잭스키스로 데뷔한 후 현재 솔로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도로교통사고감정사' (Traffic Accident Appraiser)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contact information, and a testimonial. Includes a phone number 434-7858.

Advertisement for 'SK Hana' (SK Hana) featuring a couple, a phone number 00700,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es a phone number 1599-2485 and 070-7427-8001.